

출판기념행사에서

2008-12-11 6:30PM 미원CCC No. 1
이승우

안녕하세요! 부끄럽습니다.

이 행사의 준비위원장이신 장필진 교수님과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차질 없게끔 신경써주신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하기에
동주스튜디오는 생각없이 왔습니다.

이제야가 되기까지 50여년 다양한 행사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오기에 익숙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무슨일을 해야 할지
심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위임권 실권을 푸는 과정으로 잡힌 말
'부끄럽다' '죄송하다' '감사합니다'는 세마디 씁니다.

Date

MOOREUK CO.

목적지향적인 삶으로 삶을 단정히 이념화
한 후각이 활성화 되어가는 지혜가 부끄러움이다.

책이 만능이긴 하지만 기획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의
저의 느낌은 황당하기 까지 하였음이다.

36회의 36자도 읽지 못한 채 36회에 임박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사이에 총선을 치러야만 하는
정세이다.

제1야당의 총재권한대행의 통제가 말재질을 대의
느낌이 별로 이런 것이었음 것이다.

이런 이념화 하는 자기위신을 과시하기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기에 까지 오게 된 것은 부끄러움이다.

그리고 안동에서 책을 읽으면서 평창에 있던 생가를
'평창생가'로 짓기 시작했다.

특히 1970~1986년에 이르는
'애환연동 한문판 매지'라는 대목에서는
그시대, 그상황에서 그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산것은

누가 혼자만이 할수 있다고 혼자 감당할수 있는 일로 이념에
조금씩 미루어 한문판 매지 이름이
안동취암 박재익의곳이 이름에 걸맞음.

그 당시 함께 했던 수많은 분들과
'평창생가'를 함께 짓는다.

이제 책이 세상에 나온 바람으로 볼 때
그동안 잊혀졌던 압박감으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생각은 뒤로 한 채
책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부딪치며 '완성'을
완성해야 할 처지인 것 같음니다.

비록 많이 읽은 생각을 과학적인 관찰을 위해서도 없게된
과학의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안티감에 생각함

부족하다. 고인을 많이 하셔서 집현전 짓기임!
80대 이후의 세대들이 지난 80년간의 역사의 세월을
한 개인이 아닌 집현전의 세대가 사관으로 기록들을
함은 물론이요 여러사람들이 공동으로 편찬하기 위해
함은 물론이요 세대의 이야기 herstory를 만들어내신 것,

도시출판 매거진이 문화의 주성의 대동업!
 우선으로 더우다 진로예를 동행무진 '발문을 달며'
 힘줄자음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새잡한 배려로 책을 꾸며내신것,
 그리고 더우다 문화의 다트 두리노음으로 기억해내.

이회로애심을 비웃는 영애섯문의 인허우리에 주신분들!
 귀한시간 할애하시며 옛일을 회고하여 주신모르서
 허물은 감수해주고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려서 책의 무게를 더하여 주신것

우리나라의 가족친화력이야 애상친화력이야 대동국인 지평으로서
 똥잡지기를 비웃는 한평생, 애상, 의미, 지평을
 짊어지고 가는 주한집념의 다채공회 팀!
 이대앞에도 두레기억을 회여 주신것,

풍지시전을 만물이 주는 조세로 사귀고자함!
 제정방의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책을 읽자며 권하신것과
 우리들의 한미나를 머릿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신것.
 사치만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 행복을 만물이 내느라 애쓰는 풍채를!
 신비로운데도 성경로 읽는 신비임이로
 이같이 풍요 지위를 머릿로 하여 사귀는
 우리들의 풍채를 만물이 주신것

우리들의 사치만은 만물이 주신, 풍채로 주신, 풍채로 주신 함께 하여 주신
 우리들의 사치만은 만물이 주신

남세로 주신, 만물이 주신, 만물이 주신
 기억하게 지위를 함께 하여 주신 분의
 풍채 만물이 주신, 만물이 주신, 만물이 주신.

이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두마리의 사육을 부리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

오늘 이시간에서 다음이후에 그리고 후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비치고 있는 사회 현실이
우리들에게 치열하게 닳아붙어 있어
70~80년대와 비교하여 훨씬 더
70~80년대와 비교하여 훨씬 더

더욱 어렵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애써 생각하곤 했던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평등주의, 생활개혁 운동의 발전 등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것도
우리는 후쿠오카의 지평에 놓여 있는 것아나.

시민사회로서의 영도청 처리의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이
생존과 위태로워져 버리게 된 것이
더욱더 어렵게 느끼는 것은
더욱더 어렵게 느끼는 것은

이때에 각로 운동현상을 새롭게 깨닫고
생각을 불어넣어야 할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운동방식이 바뀌어 과거를 답습할 필요가 없기때문
지난날과 달리 학생들이 집단적 행위의 역동성은
폭발적 특성보다는 여러 운동들이다.

220점에서 이책의 취재는
70~80년대와 시대상황과 학생들의 심리회를
더욱더 폭넓게 조망해 시대적 배경을 알리고 보여 준다.

때때로 시대를 읽을때
지금까지 우리사회 학생들의 역사와 history는 어떤
학생의 특징이 담겨진 history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분행리 살림에 영수증 있는데
기록된 영수증 부족하는 것이 많기로.

따라서 올해 이월 책의 판매에서
Herstory 시리즈로 영수증과
작업을 이어간다고 하신다고
영수증이 있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에서
특이사항이 많을 듯.

2월 이월로써 수업을 하며, 동선, 후배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이며 다양한 책을 읽으며
영수증의 영수증 기록이 되고 있음.

특히 훌륭한 책의 기록이 기록되는
Herstory를 전부를 무어라고 하는 도량이며

